

松川寺址 調査報告書

文 明 大
朴 桃 花 共著
崔 春 郁

1989

東國大學校 博物館

차 례

책 머리에.....	3
1. 송천사의 역사	4
2. 송천사지의 현황과 규모	11
3. 송천사의 유물	15
4. 송천사의 의의	21
○ 송천사 관계자료	23
○ 사진 및 실측도면	31

책머리에 붙여

“松川寺”는 道詵國師의 유적으로 유명한 玉龍寺, 雲岩寺와 함께 白雲山 즉 白鷄山の 三大寺刹로 손꼽히던 대찰(大刹) 가운데 하나이다. 그 유명한 玉龍寺와는 다른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같이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찰은 신라말 고려초의 창건 이래로 계속 법등이 이어져 오다가 6.25사변 이후 모두 불타버리고 현재는 논밭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러나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송천사는 우리나라 사찰가운데 드물게 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절이다.

또한 금당(金堂) 등 많은 건물지, 悔隱長老碑와 石槽, 僧塔 등 많은 遺蹟, 遺物 등이 산재되어 있어 역대 사찰문화재의 연구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터를 처음으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지표(地表) 조사와 문헌(文獻)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지만 송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밝혀낼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논밭으로 변해버린 사지(寺址)를 면밀히 조사하고 정밀 발굴을 실시한다면 사찰의 정확한 규모라든가 사찰 역사(寺刹歷史) 내지 역대의 중요 문화재를 밝혀내고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松川寺址의 조사와 報告書 발간을 후원해준 松川寺復原推進委員會 여러분 (정현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 松川寺의 歷史

全南 光陽郡 玉龍面 東谷里 白雲山 에 위치하는 松川寺址는 遺構 및 遺物들의 규모나 분포 현황으로 보아 한 때는 이 지역의 거찰 (巨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 사지(寺址)에는 석조승탑(石造僧塔=浮屠)과 석조(石槽) 등의 석조물(石造物)과 회은장노비(悔隱長老碑) 그리고 주춧돌(礎石) 등의 유구가 절구역(寺域) 곳곳에 흩어져 있고 절터(寺址)는 거의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절터(寺址)의 정확한 규모나 배치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찰에 대한 사적(事跡)을 알려주는 자료도 희귀하여서 그 첫 창건(初創)이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松川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같은 옥룡면(玉龍面)에 있던 “玉龍寺”를 창건한 신라말(新羅末)의 유명한 승려인 “道詵”이 창건하였다는 구전(口傳)이 전해지고 있다. 도선(道詵)은 통일신라말 선종(禪宗)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동리산파(桐裏山派)를 개창한 혜철(惠哲)의 인가를 받아 광양(光陽)의 옥룡사(玉龍寺)에서 독자적인 선문(禪門)인 “玉龍寺派”를 개설하여 활약한 유명한 선승이며 또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비조(鼻祖)로서 추앙받고 있는 고승(高僧)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口傳)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백운산(白雲山) 정상에서 보니 이곳이 “黃龍負舟”의 형국이어

서 기운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송천사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양에서 오랫동안 주석했던 도선국사와 관련된 이 개창설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수궁이 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文獻)이나 유물들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까지의 조사로 송천사의 역사를 가장 올려볼 수 있는 자료는 고려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탑의 옥개석(屋蓋石) 1점이다. 이것은 절터(寺址) 뒤쪽 산록에 위치하는 4기(基)의 승탑 중 한 승탑의 정상에 덧엮혀져 있다. 이 옥개석이 엮혀져 있는 승탑은 누구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현재의 모습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부재들을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옥개석은 6각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약간 반전된 완만한 경사의 낙수면의 형태와 여기에 표현된 정연한 기와골과 막새형의 끝처리, 그리고 합각면의 우동(隅棟) 표현과 처마의 서까래(椽木) 등의 세부수법으로 보아 매우 정성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말 내지 고려초기의 승탑과 세부양식이 유사한 이 옥개석은 당시 승탑의 보편적인 형태인 8각형이 아닌 6각형인 점이 특이하다. 아 물론 이 옥개석의 존재로 고려시대 초기 또는 그 이전부터 “松川寺”가 존재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 옥개석 이외에 고려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유물은 현장에 전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송천사의 사적(事蹟)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

송천사(松川寺)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0 光陽縣 梵宇條에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松川寺 雲岩寺 俱在白鷄山”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백계산(백운산)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조선초기에도 사맥(寺脈)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외에 송천사에 관한 공개된 문헌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현지 주민에게 전해지고 있는 『鄭進士文集』에 ‘松川寺天王門及四天王重造記’와 ‘勸善文’이 실려있어 당시 송천사 사세(寺勢)의 일면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 문집을 지은이는 남원(南原)사람 정원구(鄭阮龜)인데 그는 조선 仁祖 13年(1635)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집의 표지에는 ‘壬戌六月日’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1682년에 해당되며 그의 나이 47세 때이다.

‘勸善文’은 당시 송천사에 주석했던 “大禪師 尙虛堂 清順”의 사리탑(舍利塔)건립을 위해 시주를 모으자는 글이다. “尙虛堂”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 글이 戊辰年, 즉 숙종(肅宗) 14年(1688)에 지어졌으므로 17세기에 이곳에서 활약했던 스님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송천사에 남아있는 승탑 중 상허당의 부도라 밝혀진 것이 없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곳의 부도 4기중 고려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육개석이 얹혀져 있는 승탑은 다른 3기의 부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양련(仰蓮)과 복련(伏蓮)이 두가닥선(二條線)

으로 조식된 원형의 기단부라든가 옥개석의 합각머리 장식 등의 양식이 18세기에 건립된 취암당탑(翠岩堂塔: 1746)이나 송백당탑(松栢堂塔: 1793)보다는 연대가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것이 상허당의 승탑이라면 연대(年代)를 알 수 있는 17세기 승탑의 한 예로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단언할 수는 없고 다만 조심스런 가정을 해 볼 뿐이다.

‘松川寺天王門及四天王重造記’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송천사 천왕문(天王門)의 중창(重創)에 대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즉 송천사의 천왕문은 順治 9년(1652)에 전라·경상 양도(兩道)의 스님 방윤(方允)과 자조(慈照)가 건립한 것인데 康熙 46年(1707)에 화재를 입어 모두 불타고(全燒) 절에는 오직 ‘佛殿’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다른 건물은 점차 고쳐 세웠으며 천왕문은 10년 뒤인 康熙 56年(1717)에 선경(禪景)스님이 발원(發願)하여 3년에 걸쳐 재물을 모으고 시주를 받아 性輝, 懺宗, 智英, 竺軒 등의 도움으로 중창(重創)하였으며 이 때 사천왕상(四天王像)도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초기에 송천사는 본존불(本尊佛)을 모신 금당(金堂)은 물론 천불전(千佛殿)(‘松川寺天王門及四天王重造記’에 佛殿이 千佛의 도움으로 홀로 남아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千佛을 모신 千佛殿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을 비롯한 부속전각이나 요사채, 그리고 사천왕상이 봉안된 천왕문 등이 구비된 사찰의 면모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이 즈음이 송천사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가지 조선시대 후기 송천사의 사적에서 중요한 사실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의 유명한 승장(僧將) 회은응준(悔隱應俊)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현재까지도 그의 비(碑)가 현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나한전지(羅漢殿址)라 전해지는 건물지 앞의 개울가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비(碑)는 현재 비신(碑身)과 비머리(螭首)만이 남아있는데, 주민들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개울 건너편 쪽에 이 비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도 귀부(龜趺)가 묻혀있다고 한다. 이 비는 회은장노가 입적(入寂)한지 5년 후인 숙종(肅宗) 3년(1677)에 건립되었는데 현재의 높이는 총 255 cm이다.

方形에 가까운 螭首(높이 69 cm, 너비 104 cm, 두께 32 cm)의 윗면에는 두 마리의 용(龍)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용신(龍身)의 비늘과 구름무늬가 가득 새겨져 있으며, 따로 제액(題額)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뒷면에는 용의 꼬리부분과 함께 게, 거북이, 달팽이 등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를 구름무늬로 채우고 있다.

비신(碑身)(높이 186 cm, 너비 76 cm, 두께 18 cm)의 윗면에는 ‘悔隱長老碑銘’이라고 제명(題銘)이 전서(篆書)되어 있고 비문(碑文)은 해서체(楷書體)로 새겨져 있는데, 곳곳에 총탄의 흔적과 손상이 눈에 띄고 있다.

비문은 조선조 후기 시문(詩文)에 능했던 승려 白谷 處能이 지은 것이다. 처능은 유명한 벽암대사(碧巖大師)의 제자이며 현종(顯宗) 15년(1674)에는 남한산성도총섭(南漢山城都總攝)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비문에는 회은(悔隱)의 출생, 출가(出家)후의 행장(行

狀)과 승장(僧將)으로서의 활약, 그리고 그의 법손(法孫)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우게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음기(陰記)에는 비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회은(悔隱 : 1857 ~ 1672)은 남원(南原)사람으로 법명(法名)은 응준(應俊)이라 하며 속성(俗姓)은 기씨(奇氏)이다. 젊어서 출가하여 옥섬(玉暹)에게 중이 되고 뒤에 소요(逍遙), 호연(浩然), 벽암(碧巖) 등 종장(宗匠)의 제자가 되었다.

1633년 입암성장(笠岩城將)이 되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의승 벽암을 따라 전공을 세워, 다음해 양호도총섭(兩湖都摠攝)에 임명되었다. 1647년에는 팔방도총섭(八方都摠攝)이 되어 남한산성에 머무르며 많은 공을 세웠다. 1651년 남옹성(南甕城)을 쌓은 공으로 가의(嘉義)로 승급되었으며, 1660년에는 자헌(資憲), 1663년에는 정헌(正憲)으로 승진되어 현종(顯宗) 13년인 1672년에 86세로 입적(入寂)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도(門徒)인 처상(處祥), 광학(廣學), 등평(等侔), 옥청(玉淸) 등이 처능(處能)을 찾아가 명문(銘文)을 부탁하여 1677년 송천사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후 송천사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4기의 승탑이 있는데, 이들 중 옥봉당탑(玉峰堂塔)은 현재 옥룡면사무소에 있고 나머지는 절터(寺址)에 남아있다. 이들 중 취암당탑(1746)과 송백당탑(1793)은 탑신(塔身) 표면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기에는 제작연대가 없지만 모두 18세기나 또는 그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4분 스님들은 송천사에 주석(住錫)했거나 혹은 송천사에서 승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자세한 이력을 밝힐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나마 송천사의 역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때 송천사는 고려초기부터 존재했었음에 틀림없다. 주민들에 의하면 6.25사변전 까지도 사찰(寺刹)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사맥이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7~18세기에는 어느 때 보다도 큰 사세(寺勢)를 자랑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절터에 남아있는 수조(水槽)나 맷돌 등의 크기로 보아 당시 송천사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확한 발굴조사 후에는 건물지(建物址)의 규모나 배치 등이 잘 드러나겠지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건물지나 주춧돌(礎石) 등의 유구(遺構)를 통해 보아도 송천사는 꽤 광대한 절구역(寺域)을 보유하고 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송천사는 고려시대부터 천년 가까이 이 지방의 명산 백운산(白雲山)에 소재하면서 지방민의 불교신앙을 고취하였고 대변하며 사맥(寺脈)을 이어왔던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2. 松川寺의 現況과 規模

송천사지는 광양읍에서 북쪽으로 14 km 정도 떨어진 백운산(白雲山麓)에 위치한다. 송천사지 바로 뒤로는 구례군과 광양군의 경계인 도솔봉(兜率峯) 정상으로 이르는 도로가 나있는데, 광양읍에서 이곳까지는 차편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송천사가 있는 백운산(白雲山)은 전남에서는 지리산에 버금가는 이 지방의 명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억불봉(億佛峯)과 도솔봉을 동·서로 거느린 장엄한 모습의 이 백운산은 북으로는 지리산이, 남으로는 광양만과 여천 공업단지가 눈앞에 전개되는 조망이 뛰어난 산이며, 약수암대, 용소, 학사대 등 명승지가 많아 이 지방민의 명소이고, 수원과 물자 또한 풍부하다.

이곳에는 도솔봉을 시점으로 광양읍을 지나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천(東川)의 상류가 절터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고, 절터 위로는 약수암대(藥水岩臺), 조금 아랫지점에는 최상두 선생이 10년간 수학한 암굴인 학사대(學士臺)가 있는 등 경관이 뛰어난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백운산을 배경으로한 절터에는 정남향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바라 보이는 층단식지형(層段式地形)에 사찰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절터의 대부분이 근래에 들어와 논으로 개간된 관계로 이곳에 대한 전면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찰의 정확한 규모나 각 건물지의 위치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다.

절구역(寺域)의 지표조사를 통해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4곳인데, 그중에는 초석이나 유물들이 드러나 있는 곳도 있다. 이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금당지(金堂址 = A지역)와 천불전지(千佛殿址 = B지역), 그리고 나한전지(羅漢殿址 = D지역)로 전해지고 있다.

송천사의 규모는 사지 뒷편 약 200 m 가량 떨어진 산록에 4기의 승탑(僧塔)이 봉안되어져 있는 곳을 경계로 하여, 동천 건너편 회은장노비(悔隱長老碑)와 나한전지로 확인되는 산록 일대를 포함한 지역이 모두 송천사의 경내(境內)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규모에 비추어 한 때는 송천사가 제법 큰 규모로 경영(經營)된 대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논두렁에 놓여있는 몇몇 방형 초석(礎石)과 석조물(石造物), 그리고 금당지 20 m 앞쪽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석조(石槽)와 맷돌 등의 유물을 통해서도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A지역은 교란이 심하여 확실한 위치와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다. 이 지역은 25 × 19 m의 규모로 파악되는데, 현재는 모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앞뒤로 23m 길이의 축대가 남아있어 축대를 쌓고 지대를 고르게 한 후 이 면에 건물을 세웠을 것이다. 이 건물지 가운데에는 300 × 40 cm의 지대석(地臺石)과 맷돌이 방치되어 있을 뿐 다른 유구는 지표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축대 앞쪽의 한 단 낮은 평면에 100 × 70 cm 규모의 치석(治石)된 방형초석(方形礎石) 8점이 약 3.5 m 간격으로 일렬로 놓여져 있는데, 이곳이 원위치가 아니라 A지역을 경작할 때 그 지역 안에 있

던 건물 초석을 이쪽으로 뽑아 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곳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A지역 뒤쪽으로 한 단 높은 곳에 있는 B건물지는 경작지 개간시에 지형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는 22 × 20 m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곳에는 지표에 드러난 유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아마도 천불전지(千佛殿址)가 아닐까 추정되는 곳이다.

그것은 ‘松川寺天王門及四天王重造記’에 ‘……松刹之災於四祿有年矣 法界林壑蕩然無餘, 惟如來安榻之殿宇, 賴千佛冥祐, 巋然獨存而已……’라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천불의 도움으로 불전(佛殿)이 남아 있었다고 하여 당시 송천사에는 본존불상과 함께 천불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전안에 본존불과 함께 천불상이 함께 봉안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천불을 모신 천불전이 부속전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천불전은 바로 이곳 B지역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당지와 절터 앞을 흐르는 동천(東川)사이의 넓은 지역(C지역)은 천불전지, 금당지, 나한전지를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이곳 역시 현재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유구는 찾을 수 없고 다만 대형 석조(石槽)와 맷돌이 논가에 방치된 상태이다. 이곳은 그 위치로 보아 천왕문(天王門) 또는 부속 전각이나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울 건너편 회은장노비가 있는 뒷쪽으로 또 하나의 건물지(D지역)가 남아 있다. 동향으로 자리잡은 이 건물지에는 그 후면과

오른쪽으로 석축(石築)이 아직 남아 있다. 또한 7~8개의 초석이 약 2.6 m의 간격으로 드러나 있는데, 석렬(石列)의 윤곽이 이루는 면적은 약 30 m × 4.3 m이다. 석렬의 현상에서 볼 때 정면의 칸 수는 불확실하지만 측면은 1칸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절터의 다른 지역보다 가장 유구(遺構)의 교란이 적은 건물지여서 발굴조사를 한다면 건물의 규모가 거의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곳은 그 위치로 보아 송천사의 부속 암자나 혹은 회은장노(梅隱長老)를 기념하는 조사당(祖師堂) 또는 영각(影閣) 같은 종류의 전각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절터를 4지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경작지를 만들 때 워낙 유구의 교란이 심하여 현재로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그 규모나 배치를 고찰 할 수 없고, 더 자세한 현황은 발굴조사 이후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 건물지 내에 산재한 유구나 유물 이외에 절터 뒤쪽으로 4기의 승탑(僧塔=浮屠)이 자리하고 있고, 회은장노비가 D건물지 앞에 그리고 금당지 서북쪽 개울가에 또 다른 맷돌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유물과 기와편들이 전 사역에 흩어져 있다.

역사가 오랜 이 송천사에는 오래된 유물이 여러 점 되고, 또 그 위치적인 조건도 우수하여, 만일 절터를 발굴하여 복원한다면 종교적, 역사적, 또는 관광적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松川寺의 遺物

1) 逸名僧塔

절터 뒤쪽에 물려있는 4기의 승탑(僧塔=浮屠)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돋보이는 이 승탑은 현재의 총 높이가 207 cm이다.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 승탑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3종류의 다른 부재를 쌓아 올려놓은 것으로 가장 위에 있는 옥개석과 그 아래의 원형석재는 그 이하의 승탑과는 별개의 것이다.

가장 위에 얹혀져 있는 옥개석은 송천사지에 남아있는 유물 중 가장 연대가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옥개석은 높이가 34.4 cm, 폭 81.6 cm의 크기로 낙수면이 이루는 아름다운 곡선, 정연한 기와꼴과 막새기와의 표현, 그리고 처마의 서까래표현 등의 세부수법이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신라말 내지 고려초의 승탑양식이므로 이 옥개석의 연대 역시 이즈음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부재는 이 옥개석과는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잘 다듬은 방형 지대석(地臺石) 위에 상·하 2단의 원형 기단석(基壇石)이 놓여 있는데 그 표면에는 각기 연화문(蓮華文)을 2조선으로 새겨놓았다. 이 연화문의 연판은 평판적이고 도안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층기단의 윗면은 테두리를 연꽃모양으로 깎아내어 장식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위로 윗면이 넓은 원통형 탑신(塔身)이 놓여 있는데 이 표면에도 역시 연꽃이 새겨져 있다. 1조선으로 새긴 이 연꽃은 기단석의 연꽃과는 달리 밀이 안으로 말린 모습이

다. 그위로 다소 두껍고 투박한 인상의 4각형 옥개석이 올려져 있는데 낙수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4귀의 우동표현이 보이며 각 전각에는 간략화된 귀꽃형이 표현되어 있다. 이 승탑은 현재의 모습이 완형이 아니고 그 형태도 매우 특이한 것이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이나 양식상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제작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같이 있는 취암당탑(翠岩堂塔)이나 송백당탑(松栢堂塔) 등의 다른 승탑들보다도 더욱 정성들여 제작했고 또 그들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승탑은 『鄭進士文集』에 수록된 ‘勸善文’에 나오는 상허당(尙虛堂)의 탑이 아닐까 추정해 보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조선시대 승탑과 고려초기로 추정되는 옥개석 중간에는 그 출처나 용도가 불확실한 원판형 부재가 놓여있다.

이렇게 이 승탑은 현재 3종류의 다른 부재들을 쌓아놓은 형태이므로 원상대로 따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2) 翠岩堂塔

3기의 승탑과는 별도로 조금 떨어진 아랫 산록에 위치하고 있는 이 승탑은 조선후기 승탑의 전형적인 형식인 석종형승탑(石鐘形僧塔)이다.

현재의 높이는 105 cm인데 상륜부(上輪部)가 유실되어 탑신(塔身) 윗면 중앙에 뚫린 사리공(舍利孔)이 노출되어 있고 탑신 아래부분은 결손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아마도 언젠가 도굴을 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단부는 4각형이지만 탑신과 면한 윗면은 2단의 원형 물딩으로 처리되어 있다. 탑신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다만 “ 翠岩堂 乾隆十一年 ” 이라고 새겨져 있어 취암당의 부도이며 1946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취암당이라는 스님은 물론 이 절과 관계가 깊은 분이겠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완전한 형태도 아니고 조선 후기 승탑의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대가 확실한 18세기 승탑의 한 예로서 가치를 지닌다.

3) 松栢堂塔

이 승탑은 송천사지 뒤편 산록에 건립되었었다. 전체높이가 164cm인데 비록 상륜이 깨어졌지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넓은 지대석 위에 탑신과 폭이 비슷한 단층기단이 있고 그 위에 탑신이 놓여있다. 석종형(石鐘)의 탑신은 8각으로 표면을 다듬어 그 위에 “ 松栢堂眞塔 乾隆五十八年 癸丑二月日立 ” 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다.

즉, 1793년에 세워진 송백당의 탑임을 알 수 있으나 송백당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각형의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다소 급한 편이고, 추녀의 반전도 심한 편이다. 이 위에 올려진 寶珠는 깨어진 것을 시멘트로 붙여 놓았는데 전체 비례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다. 전체적인 비례로 보아 상륜부가 크고 두터우며 보주도 커서 불균형스럽고 둔중한 느낌을 주는 승탑이다.

4) 應庵堂塔

이 승탑은 조선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석종형승탑(石鐘形僧塔)이다. 전체높이 144cm의 이 승탑은 상·하면이 좁아 마치 포탄 같은 세장한 모습이다.

원형의 기단부에 탑신좌(塔身座)를 마련하여 그 위에 탑신을 안치하였는데 석종형 탑신 하단에는 단판연화문(單辨蓮華文)을 둘러 장식하였다. 탑신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고 ‘應庵之塔’이라는 탑명(塔名)만이 새겨져 있다.

응암당은 혹시 『東師列傳』에 수록된 “應庵禪師”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영암(靈岩)사람으로 道光10년(1830) 태어나 해남 두륜산(頭輪山)에서 출가하여 光緒12년(1886)에 청신암(淸神庵)에서 입적하였다고 전한다. 이 응암선가가 이 탑의 주인이라면 이 승탑은 1886년 무렵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5) 玉峯堂塔

현재 옥룡면(玉龍面)면사무소 내의 마당 한구석에 놓여져 있는 이 승탑은 원래 송천사지의 다른 부도와 같이 절터 뒷편 산록에 붕괴되어져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를 싣고 가는 것을 이곳 주민들이 회수하여 그곳에 두었다고 한다.

전체높이 120.0cm로 크기가 작은 이 탑은 원형기단(圓形基壇)과 석종형탑신(石鐘形塔身), 그리고 윤곽이 희미한 6각형 옥개석(屋

蓋石)으로 구성되었다. 기단석(基壇石)은 석질 뿐만 아니라 조각수법이 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 아마도 다른 탑부재의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측면에 돌린 8엽(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과 그 윗면의 물딩처리 등은 상당히 세련된 솜씨를 보이고 있다.

탑신의 표면에는 장방형의 칸을 마련하여 그 속에 '玉峯堂'이라는 법호(法號)를 새겨 놓았고 그 옆도 연호인 듯한 글이 새겨져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탑신 위에 올려져 있는 옥개석은 낙수면(落水面)의 경사가 매우 완만하며, 합각머리가 굽게 표시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추녀부분에는 별다른 묘사가 없으며 두텁고 둔중한 처리를 보이고 있다.

6) 石槽

석조는 큰 돌의 내부를 파서 물을 담아 주로 궁실이나 사찰, 상류민간 등에서 상수(上水)를 담아 두거나 기물을 씻는데 사용된 석조물이다.

석조는 하나의 돌을 원형, 방형, 장방형 등으로 내부를 파내어 물을 담는데, 물의 수량 조절과 맑은 물을 담아두기 위하여 유수구(流水口)를 갖추고 있고, 바닥에는 배수구(排水口)를 뚫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송천사지 석조는 금당지로 추정되는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다. 크기는 길이 195.0 cm, 폭 110.0 cm, 높이 83.0 cm의 장방형으로 대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외면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암석으로 구

연부(口緣部)보다 바닥이 약간 좁고 소박한 형태이다. 구연의 한 모서리에는 폭 3.0 cm의 일수구(溢水口)가 있고, 하단에는 원공(圓孔)의 배수구가 뚫려있는 이 석조는 전체적으로 둔중하고 섬세함은 없으나 나름대로 소박함이 엿보이고 있다.

7) 맷돌

금당지로 추정되는 A지역 앞 논두렁 石槽 부근에 방치되어 있는 이 맷돌은 윗쪽이 소실되고 현재는 아래 쪽만 남아 있다. 크기는 가로 135.0 cm, 세로 110.0 cm, 바닥지름 70.0 cm, 중쇠 공 8.0 cm인 대형 맷돌인데 주둥이가 길게 빼어져 나와 있다. 이렇게 주둥이가 길게 나온 형태는 주로 남부지방 맷돌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송천사지 맷돌이나 석조의 크기로 보아 이 절이 꽤 큰 규모를 지녔던 사찰로 생각된다.

4. 松川寺의 意議

백운산 남쪽에 위치한 송천사는 얼마전에 폐사(廢寺)되어 버렸지만 절터에는 아직도 금당지(金堂址) 등 많은 건물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비와 승탑(僧塔) 등 꽤 많은 유물(遺物)들이 남아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절터는 현재 논밭으로 변해버리고 방치된 채로 있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절터는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유구한 역사와 많은 건물지, 중요한 유물들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찰지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귀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사찰의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松川寺는 신라 선종(禪宗) 동리산파의 일파인 “玉龍寺派”를 창시한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옥룡사 절이 위치해 있는 “白鷄山”(현 白雲山)에 운암사(雲岩寺)와 함께 창건한 3대거찰(三大巨刹)의 하나로 인정받는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아다시피 옥룡사는 도선국사가 말년에 머물면서(住錫) 선풍(禪風)을 드날리던 유명한 선찰(禪刹)일 뿐더러 도참사상에(圖讖思想)에 의하여 절을 점지하였기 때문에 특히 그가 머물던 백계산과 옥룡사는 최상의 길지(吉地)로 알려졌고, 이런 까닭으로 그가 창건했다고 판단되는 송천사 역시 최상의 길지로 널리 알려졌을 것은 물론이다. 이 점은 송천사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도 충분히 짐작가는 일이다.

둘째, 이 송천사에는 신라말 고려초의 창건사실을 시사해주는 승탑

옥개석(僧塔屋蓋石)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이 지역 사원 형식과 불교미술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옥룡사에도 당시의 유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현재 비편(碑片)만 1점이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이 일대에서 도선국사와 관련되는 유물이 출토되면 막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발굴된다면 이러한 당대 유물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현재 이곳에는 임란직후 승대장(僧大將)으로 유명하던 회은장노(悔隱長老)의 탑비(塔碑)가 있고 또한 천왕문(天王門)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의 조성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조선조 후기의 이 사찰의 번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물이나 문헌이 앞으로 좀 더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그 당시의 사찰규모나 갖가지 유물들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선조 후기의 사원형식이나 불교미술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어쨌든 도선국사에서 부터 그 이후 조선조까지의 이 지역 사원형식이나 역사 그리고 불교미술의 제문제를 이 송천사지의 조사 발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松川寺關係資料

1. 正憲大夫八道都摠攝兼僧大將悔隱長老碑銘

顯宗卽位之十三年春三月十五日八道都摠攝悔隱長老卒于星浮山之天柱峯下闕世八十六坐夏七十一法字應俊俗姓奇氏南原人悔隱其號也初奇無子母尹祈七星于智異山夢異光入懷娠長老焉少出家從玉暹老師落髮晚參道遙浩然碧岳諸大宗匠咸執弟子禮爲人魁貌而長身身雖係桑門志則慕經濟癸酉春湖南按廉聞其志署爲笠岩城將累累立功丙子冬清兵猝至湖南觀察使李公時昉起碧岳大師爲義兵僧大將老從之參謀以助兵勢明年丁丑夏以募義功加資折衝授兩湖都摠攝至丁亥春陞嘉善爲八方都摠攝居南漢辛卯冬朝廷又以營築南甕城益嘉其功陞嘉義庚子冬陞資憲爲僧大將癸卯夏特加正憲其在任○○導錄帶輶鞞前堅施檜浚擁償僕驅馳軍務間者三十年許其平居也或時治盛脈衣冠簪組皆綺纈金玉之屬出入乘驪駟統緹鞞鞞輶厲游纓伴擬宰臣無敢誚若古所謂黑衣之傑長老之謂也財產亦甚鉅每於親舊貧病多所施舍不恤畜蓋有悲濟之道也其徒前摠攝處祥僉知廣學等伴玉清此走五百里乞銘於白谷處能曰我師生有顯也死無銘則恐沈泯不傳且守禦佳息菴金相公錫胃氏遺以熟鐵百斤用助鑄錢之具重愛我師之劬勤國事故也光陽之白雲卽我師少日發跡之地也將具一片石刻之樹山阿令浚世知有我師則生死俱有顯也而於吾心亦無懟矣然知我師者莫如君君亦能爲文文堪上石盍爲銘余於長老爲法弟又何忍不銘故應曰諾爲之辭曰

奇之氏系世家帶方初無胚胎脫有禎祥山岳降靈夢忍驚姜形徒出世志慕經邦魁顏廣眉白而身長國步難危隣敵強梁虎豹相踏民士勸勦長老參謀從橫戰場朝廷褒賞兩湖金章俄而陞秩統攝八方囊境載纛州載彷彿平居坐起旆輝光冠帶簪笏金玉其裝出入遊行青驄紫韁於古有之黑衣賢良財果雖鉅拂篋傾箱曰有神兒乞銘遑遑訪我于北數百里強南海之潛縣曰光陽樹石係文百歲惟芳

(正憲大夫八道都摠攝兼僧大將 悔隱長老碑銘)

(정헌대부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회은장노비명)

현종(顯宗)이 즉위(卽位)한지 十三年 봄三月十五일에, 八도 도총섭 회은 장로가 성부산 천주봉(星浮山天柱峰) 밑에서 열반하니 세상 나이는 八十六이요 중 나이는 七十一이었다.

그 법자(法字)는 응준(應俊)이요 속성(俗姓)은 기씨(奇氏)이며 남원(南原) 사람으로서 회은은 그 호이다.

처음에 기씨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 윤(尹)씨가 지리산(智異山)에서 칠성(七星)에 기도하여 그 꿈에 이상한 광명이 품에 들어 장로를 배었다.

장로는 젊어서 출가하여 옥섭(玉岳) 노사(老師)에게서 머리를 깎고, 그뒤에 소요(逍遙)·호연(浩然)·벽암(碧岳) 등 여러 큰 종장(宗匠)에게 나아가 모두 제자의 예(禮)를 올렸다.

그 사람됨은 얼굴이 뛰어나고 키는 크며, 몸은 비록 상문(桑門)에 매어 있으나 그 뜻은 경제(經濟)를 생각하고 있었다.

계유년 봄에 호남 안렴사(湖南按廉使)가 그 뜻이 그렇다는 말을 듣고, 입암성장(笠岩城將)으로 썼더니 여러번 공을 이루었다.

병자년 겨울에 청(淸)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 왔다. 호남 관찰사 이시방(湖南觀察使李時昉)이 벽암(碧岳)대사를 의병승(義兵僧) 대장으로 기용(起用)했을 때 장로도 그를 따라 나가 참모(參謀)로 그 병세(兵勢)를 도왔다.

이듬해 정유 여름에 의병(義兵)을 모집한 공으로 절충(投衝)을 가자(加資)하여 양호 도총섭(兩湖都摠攝)에 임명하였다.

정해년 봄에 이르러 가선(嘉善)으로 승진(昇進)하여 八방 도총

섭(八方都摠攝)이 되어 남한산(南漢山)에 있었다.

신묘년 겨울에 조정에서는 또 남옹성(南甕城)을 쌓았다 하여 그 공을 가상히 여겨 가의(嘉義)로 승진시키고, 경자년 겨울에는 자헌(資憲)으로 승진시켜 승대장(僧大將)을 삼았으며, 계묘년 여름에는 특히 정헌(正憲)에 임명하였다.

그가 재임(在任)할 때에는 창을 들고 띠를 띠고 활을 멘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기를 든 군사들을 뒤에서 용위하게 하면서 三十여 년 동안 군무(軍務)에 활약하였다.

그는 평상시에도 혹 때로는 화려한 의관(衣冠)과 잠조(簪組)로 꾸미니 그것은 다 비단과 금옥(金玉) 따위이며, 출입할 때에는 훌륭한 말을 타고 비단 고삐를 잡히며 거리낌 없이 놀아 재신(宰臣)과 같았으나 아무도 그를 꾸짖지 못했으니, 이른바 흑의(黑衣)의 호걸이란 장로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장로는 또 재산도 매우 많아 항상 친구나 앓는 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고 쌓아 두지 않았으니, 그것은 자비로 구제하려는 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문도(門徒)로 전 충섭 처상(處祥)과 첨지 광학(僉知廣學)과 등평(等倅)·옥청(玉淸)등이, 북으로 五백리를 달려와 백곡 처능에게 명문(銘文)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스님은 생전에 저명(著名)하였는데 죽어서 명(銘)이 없으면 그 이름이 아주 전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수어사 식암 김상공 석주(守禦使息菴金相公錫胄)씨가 숙철(熟鐵) 백근을 보내어 조각하는 데에 보태 쓰라 하니, 우리 스님이 국사(國事)에 애쓰신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양(光陽)의 백운산(白雲山)은 우리 스님이 젊어서 처음으로
일어난 땅입니다. 그 산 언덕에 비석을 세워 후인(後人)들로 하여
금 우리 스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하면, 스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 세상에 알려질 것이요, 또 우리들 마음에도 한이 없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대 만한 이가 없고 또
그대는 글도 잘하니, 그 비문을 지어 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나는 또 장로의 법제(法弟)인데 어찌 차마 짓지 않겠는가
? 그래서 응낙하였고 그 글(辭)에 말하였다.

기씨의 계보(系譜)는
대대로 대방(帶方)에 살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늦게야 경사가 있었다.

산악(山岳)이 영기(靈氣)를 내려
꿈에 갑자기 강(羌)을 놀라게 했나니
형상은 비록 세상을 벗어났으나
그 뜻은 나라 일 생각하였다.

뛰어난 얼굴에 미간(眉間)은 넓고
몸은 흰데 키는 컸었다.

나라의 운명은 어렵고 위태하여
이웃 도적이 함부로 날뛰었나니

호랑이와 표범이 짓밟을 때에
이 나라 백성들 바빠 달렸다.

장로는 그 때 참모로 나가
전쟁터에서 종횡(縱橫)했나니
조정에서는 그 공을 포상해
양호(兩湖)의 도총섭 벼슬 내렸다.

그 뒤에 이내 또 승진하여
八방을 모두 통섭했나니
갑옷과 투구와 창과 깃대로
三十년 동안 돌아다녔다.

평상시에도 앉거나 일어나거나
그 옷차림새는 번쩍이었고
관대(冠帶)와 잠홀(簪笏)의 그 꾸밈새는
모두 금이나 옥으로 썼다.

밖으로 나가 노닐 때에는
푸른 총마(驄馬)에 자색 고삐 잡았나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흑의(黑衣)의 현량(賢良)이 바로 그였다.

재물은 비록 많았지마는
상자를 기울여 모두 털었다.

그 뛰어난 제자들 있어
바빠 비명(碑銘)을 청하기 위해
북쪽으로 그 수백리 길을
멀다 알고 나를 찾아왔었다.

남해(南海)의 물가에 고을이 있어
그 이름을 광양(光陽)이라 하는데
거기에 비 세우고 글 새기나니
꽃다운 그 이름 영원하여라.

2. 「鄭進士文集」 仝撰 松川寺 關係 資料

1) 勸善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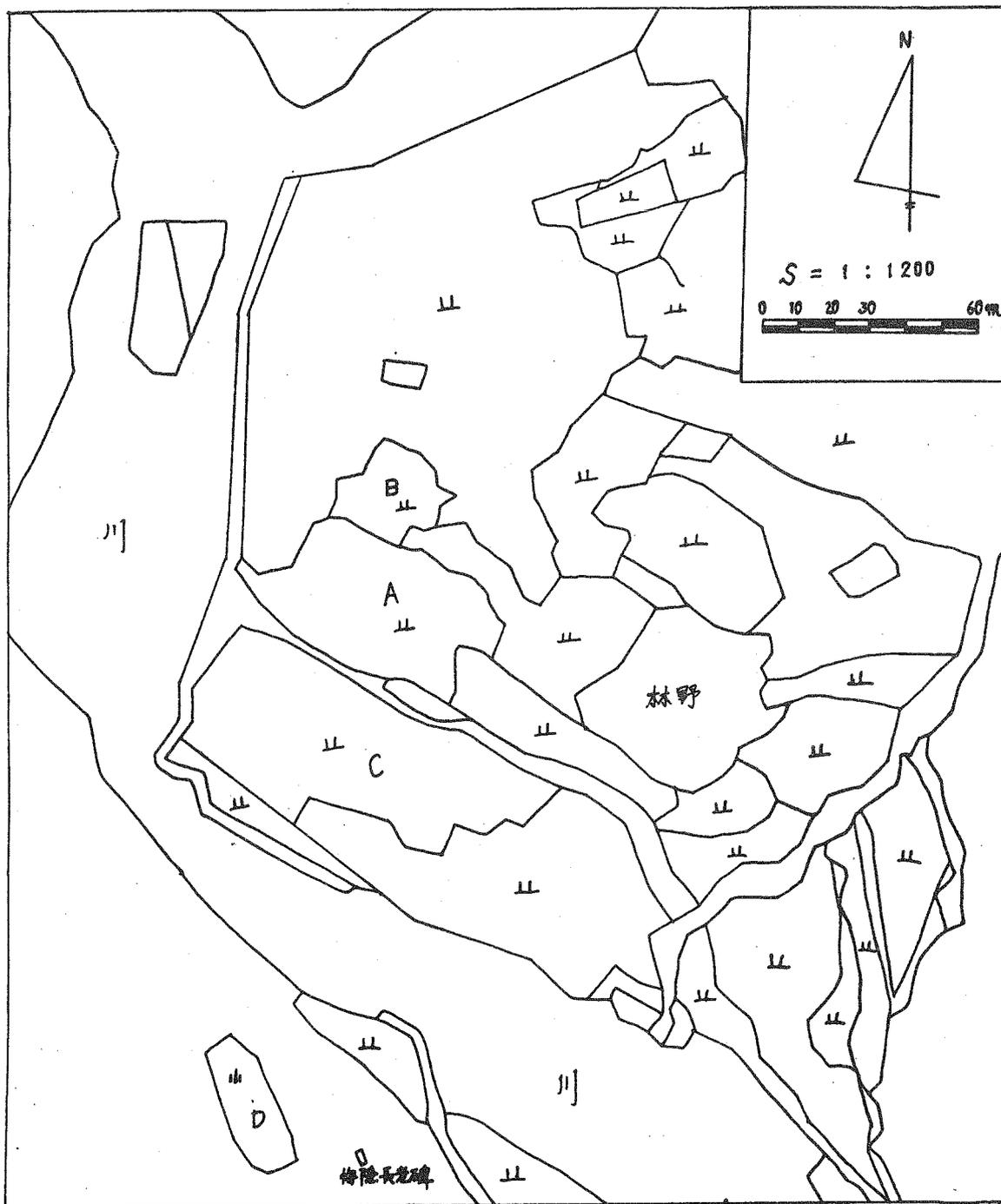
戊辰季夏松川寺時作

人於死生間 有靈異希有事 特見於十日之視 則同其類者 必表其迹 而誇諸衆 此則人情之所同 而不以僧俗有間者也 惟是叢林法界之爲事佛場之所 則莫不以塔劫浮屠 聳樹於梵王宮之前後者 夫孰非爲有道者 禪而表其異歟 茲者曦陽之白雲山中 有大禪師尙虛堂 天質謹厚醇美 頗得禪家坐息機氣味 平日唯無刻若工夫 頓悟於正法眼藏而不以俗師輩 營營勞勞 爲一身口腹累 眞若織蓋波羅 而淡然於慾界者然 及其示寂也 化蓋沙界形骸於天三地二爐中 而獨有一寸靈骨 躍如於烘焰烈燼之間 而與慧炬心○ 俱爲不滅之寶則其効靈 呈異 可謂禪門希有 而得道者之報 果如是不可誣也 蓋其慈根善源 固非今身一朝夕所做 乃實自百千劫前 變化身 已有積久功者 可得想見爾噫 口貝葉而手楞伽者 無慮於環八路祇園 而畢意將其既化之形與傳薪之炎 俱灰俱燼者 何限 無復有 寸膚片骸之留身後之表 而世所謂 珠躍而骨超者 曠一世絕無而僅有 則此師超骨之異 其可等視而泛觀 不爲表著於日後之視聽哉 於是 遠近緇錫之類 合辭而言曰 世無浮屠 則已有之 不爲此師設 而將誰爲哉 乃 地于本刹之便近麓 將斂其骨而塔之 顧其石役之鉅 非瞻其財裕其力 則難乎其有成矣 况禪家大小事 莫大募緣爲之 而化土之設 有由來矣 雖一字舍之細 一橋梁之微 皆出於敦善願勸慈悲 以籍夫十方善男女之布施 則惟此彰善表異之舉 其可不樂告於善施能散之人 賴其助乎 且念成之美 天下之同情也 聞斯舉而助斯役者 孰不名發歡喜之心 而惟恐其後於人哉 第被衲持鉢之身 遍謁貴家善士之際 不可鼓空舌以動之 爲乞緣○疏 以資一言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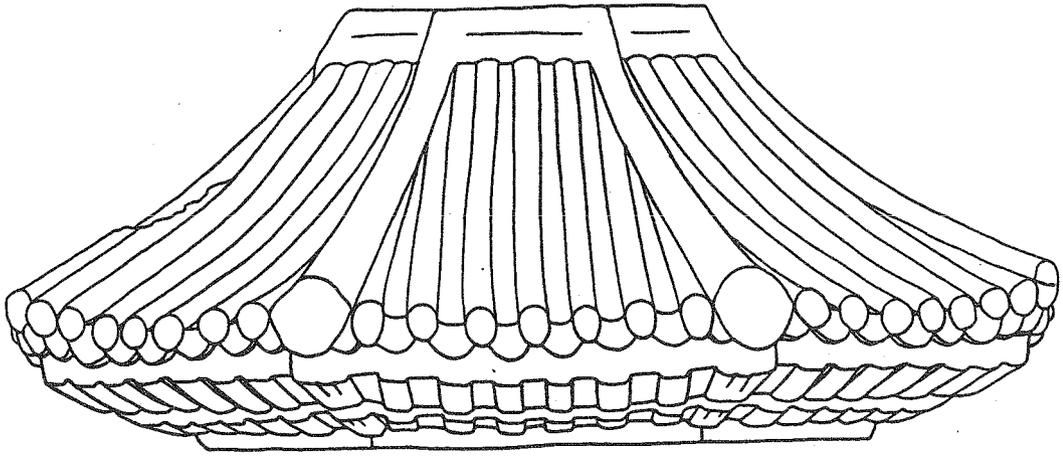
助 故因其懇而斂其意 弁諸勸軸之首 使覽斯文者 知斯役之 非尋常宇舍橋梁之比 而惕慮以助焉 大師法諱清順 寺則松川 地則玉龍子舊住之東麓云。

2) 松川寺天王門及四天王重造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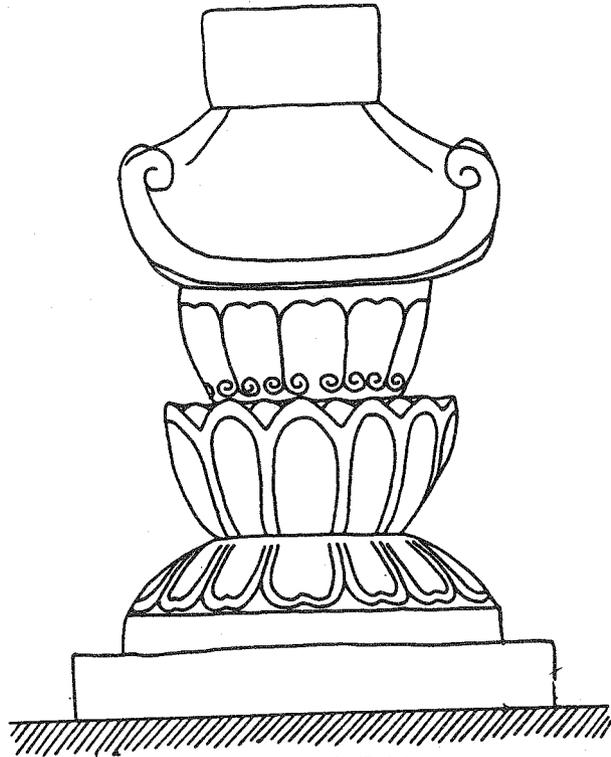
前乎有而後乎無 俗界乃道場之欠缺，事有能復之者，比之新造功，實倍之，松刹之灰於回祿有年矣，法界林壑蕩然無餘，惟如來安榻之殿宇，賴千佛冥祐，巋然獨存而已，中間衲子所居之室，則稍稍改建，而天王門之 護衛其前者，獨東免灰燼之空基 居禪及 躡是區者 莫不指點嗟惜 近者 老師禪景 慨然有志於再造 居禪輩 又從而推勸之 於是 貸其田一頃 得穀六十石 因其本而息之 作一百四十餘石 寺中所補 又八十石 以之息三年之利 又募緣於十方善男女 求助於本刹持鉢徒 合財近千 遂鳩材塑質丹碧 聚木工 邀畫師 進役夫 齊居而就役 竭力而供養 人皆樂赴其事 十數月 而左右傑閣 屹然並起 魁形四驅 儼然雙列 丹青煥燁 儀狀猛肅 事佛之場 修然頃色 設法之法 宛然復古 林藪之百恠千邪 屏息退縮 不敢近於禪房梵宇之側 老師重創之功 可以軼前代之新造而壯津筏 拓福田 非此而誰歟 蓋是寺之創 則不可詳其年代 而是門之造 則兩道僧方允慈照其人 而在順治九年壬辰也 是門之災 則在康熙四十六年丁亥也 是門之重創 則在康熙五十六年 丁酉也 化士 則茲所云 禪景也 助其力者 則都監師性輝也 別座師憚宗也 訂明師智英也 方丈師 軒 又統管之 以成斯役 噫前之創始者 既已耀名於至今 則今之重建者 又豈關流聲於後代也 遂斂其本末 記于壁上以資夫觀聽者之稱賞 而他日輪回之日 亦足爲後身之記取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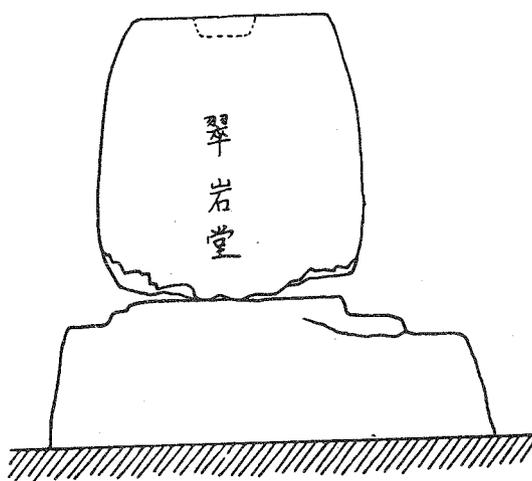
1. 松川寺址 現況 測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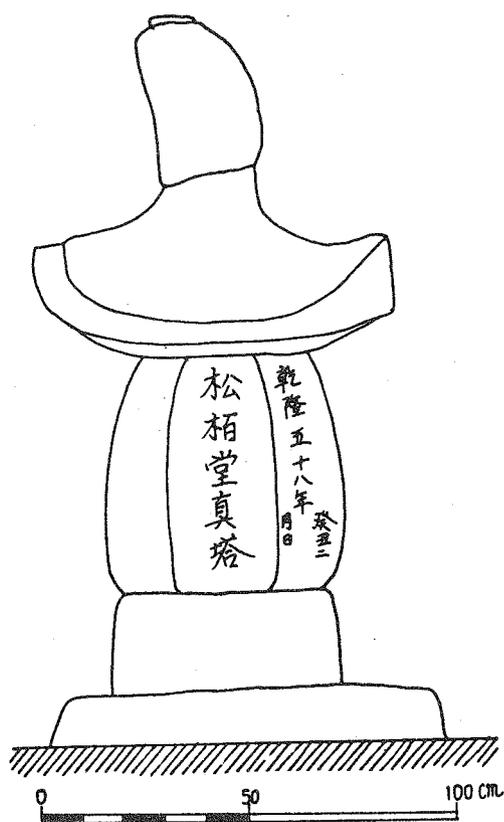
2. 逸名僧塔屋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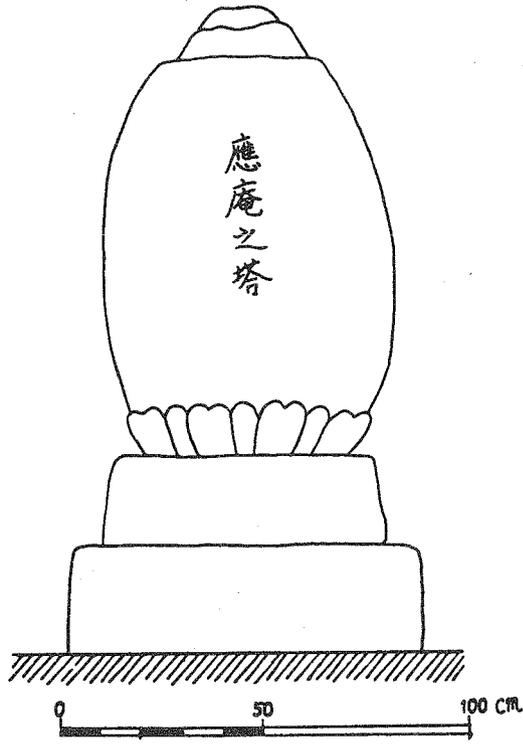
3. 逸名僧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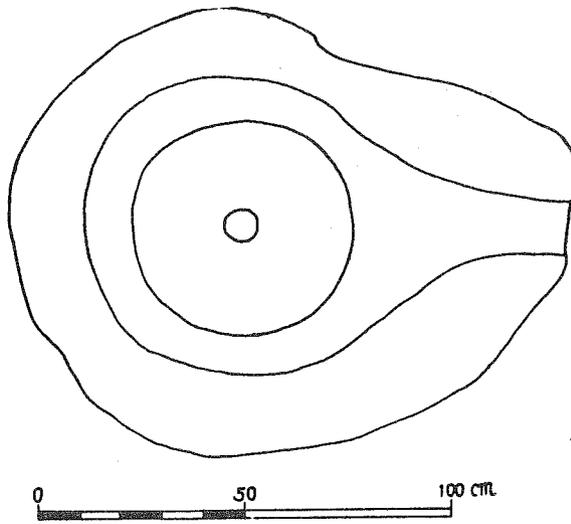
4. 翠岩堂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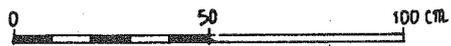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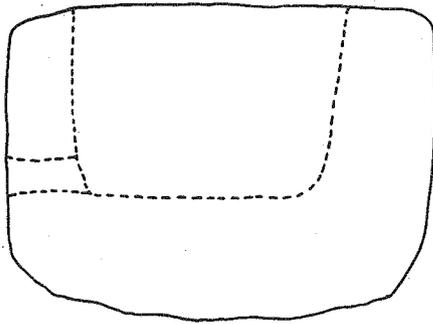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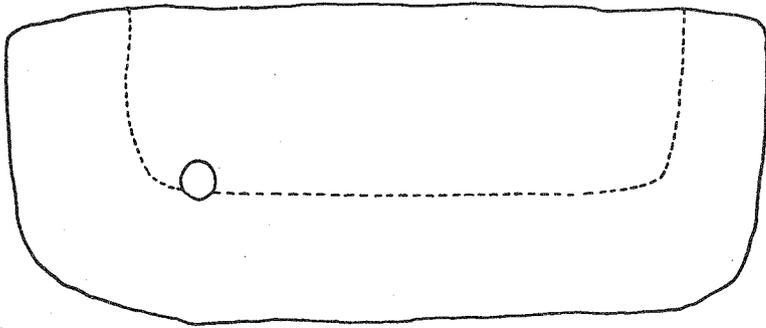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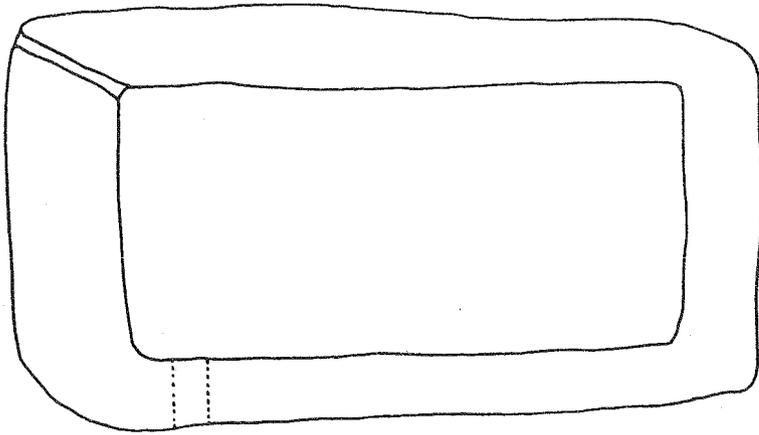
5. 松栢堂塔



6. 應庵堂塔



7. 맷 돌



8. 石 槽



사진 1 . 白雲山과 松川寺址



사진 2 . A 지역 (金堂址)



사진 3 . A 지역에서 내려다본 C 지역



사진 4 . 계곡입구에서 본 寺址



사진 5 . B 지역 (千佛殿址)



사진 6 . D 지역 (羅漢殿址)



사진 7 . 寺址에 방치된 초석



사진 8 . 초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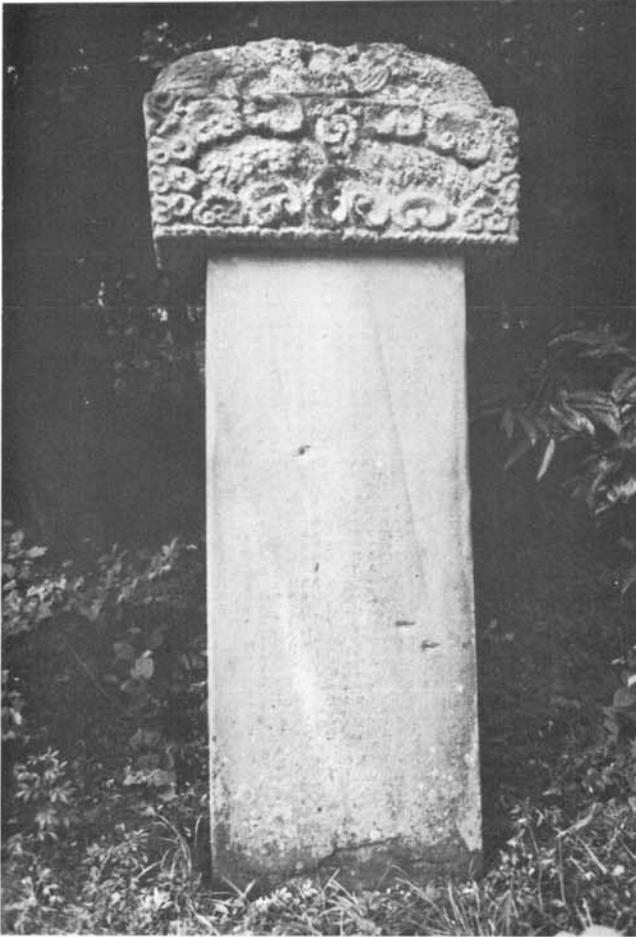


사진 9. 悔隱長老碑



사진 10. 悔隱長老碑의 虯首



사진 11. 梅隱長老碑文 拓本



사진 12. 梅隱長老碑文 陰記 拓本



사진 13. 僧塔屋蓋石



사진 14. 逸名僧塔



사진 15. 翠岩堂塔



사진 16. 松栢堂塔



사진 17. 應庵堂塔



사진 18. 玉峯堂塔



사진 19. A 지역 앞 논두렁에 방치된 石槽



사진 20. 石槽



사진 21 . A 지역 논두렁의 있는 맷돌



사진 22 . 냇가에 방치된 맷돌



사진 23. 鄭進士文集



사진 24. 勸善文(『鄭進士文集』수록)

松川寺址調査報告書

文明大・朴桃花・崔春郁共著

펴낸이: 文明大

펴낸날짜: 1989.10.15

非賣品

이 報告書는 松川寺址復原推進委員會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음.